

# Style

조선일보

FALL 2017



Ermenegildo Zegna

DEFINING MOMENTS

# A LASTING LEGACY

더 빨라지고 복잡해진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남성복 분야에서 깊은 전통을 지닌 에르메네질도 제나가 세계적인 명배우 로버트 드 니로, 최고의 공연 예술가 벤자민 밀피에와 만났다. 제나는 이 예술가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귀를 기울였고, 아주 특별한 필름이 탄생했다.



## 예술가들의 결정적 순간

위 사진에 등장한 로버트 드 니로(Robert De Niro)를 보며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림으로써 생각해볼 수 있겠다. 영화 <비열한 거리>, <대부2>, <택시드라이버>,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 걸출한 작품에 출연한, 영화 이외에는 다른 활동의 거의 하지 않는 대배우가 이 페이지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탈리아의 상징이자 최고의 수트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결정적 순간(Defining Moments)라는 필름 캠페인을 전하는 인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를 구성한 이미지는 실제로는 캠페인 필름 영상의 인상적인 부분을 따온 스틸컷이다. 풀 영상은 에르메네질도 제나 홈페이지(zegna.com)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데, 마치 영화처럼 보이는 이 스토리에 로버트 드 니로와 함께 등장한 이는 프랑스 안무가이자 무용수 벤자민 밀피에(Benjamin Millepied)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유명한 이 멋진 남성은 우리에게 영화 <블랙스완>의 총 안무감독이자 할리우드 여배우 나탈리 포트만의 상대배우, 이후에는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러 그녀의 배우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독특하게도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SNS 채널로 수많은 신상품을 선보이기에 바쁜 요즘 같은 때 한 차원 높은 보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한 세기에 걸쳐 남성복이라는 특별한 주제에 매진한 브랜드의 저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다. 결국 더 빨라진 첨단 시대에도 진실성이 담긴 스토리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에르메네질도 제나,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촬영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 드 니로, 밀피에, 에르메네질도 제나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맞춤 수트, 완벽한 남성복으로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자들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다. 이 브랜드의 아티스틱 디렉터 알레산드로 사르토리는 지난 시즌부터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며 에르메네질도 제나와 고객의 진실된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캠페인 스토리를 만들었고, 이탈리아의 유명 감독 프란체스코 카로치니가 이를 '결정적 순간'이라는 주제의 필름으로 완성한 것. 짧은 영화 속에서 이 두 남자는 뉴욕 특유의 활기가 느껴지는 거리를 배경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유의 본고장이자 꿈을 깨닫게 해주는 뉴욕을 사랑하는 드 니로와 자신의 분야에서 필요한 창의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밀피에는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친밀감을 보여준다. 특히 자신과 뉴욕의 운명적인 인연을 이야기하는 드 니로의 스토리에서 여타 브랜드 캠페인에서 보기 어려운 진실성이 느껴진다. 뉴욕을 상징하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고, 이 도시를 배경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간 드 니로의 이야기는 인생의 가치란 무엇인지, 큰 꿈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친절하게 들려준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드 니로의 눈빛과 목소리, 강건한 자세는 영상을 보는 내내 귀 기울이게 만든다. 드 니로의 철학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지와 경험을 뚜렷이 전하는 밀피에의 우아한 태도 역시 인상적이다. 예술이라는 주제로 신념과 철학을 나누는 것은 이탈리아 고전 속 토론, 올바른 가치에 대해 논하는 철학자를 연상케 한다. 세대는 다르지만 뉴욕이라는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우아함과 뚜렷한 인생관을 지닌 이들이 드러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로버트 드 니로와 벤자민 밀피에의 글로벌 캠페인 영상은 에르메네질도 제나 공식 홈페이지(zegna.com), 혹은 defining-moments.zegna.com에 접속하거나, 인스타그램 태그 검색창에 #ZegnaConversations를 입력해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에르메네질도 제나 - 스타일 조선일보 스페셜 에디션> 호에는 로버트 드 니로와 벤자민 밀피에의 스토리를 이어받아 세계적인 영화감독 박찬욱, 명배우 유지태의 만남이 화보로 펼쳐진다. 박찬욱 감독을 세계적인 거장으로 발돋움하게 한 작품인 <올드보이>를 통해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져,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것.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는 남자들의 교감이 진실성 있게 펼쳐진다. 본 호에 실린 박찬욱 감독과 배우 유지태가 등장한 화보 촬영장을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해당 필름은 <스타일 조선일보> 공식 인스타그램(#stylechosun)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에디터 배미진**



(감독 박찬욱) 비류나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돋보이는  
그레이 컬러 울 수트, 브라운 컬러의 울 터틀넥,  
브라운과 네이비 루톤 컬러의 니트 타이, 다크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글로브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나**.  
(배우 유지태) 비류나 컬러의 체크 패턴을 더한 미디엄 그레이  
컬러 재킷, 다크 그레이 컬러의 자지 폴로 셔츠, 그레이 컬러의  
트위드 무클레 스카프, 다크 그레이 컬러의 플란넬 트라우저,  
스웨이드 슬림 벨트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나**.



세계적인 감독 박찬욱과 명배우 유지태가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이야기한다.  
에르메네질도 제나와의 인연으로  
한자리에 모인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photographed by hong jang hyun*

# DEFINING MOMENTS

자카드 패턴의 캐시미어 러틀넥,  
비류나 컬러의 스웨이드 패딩 베스트,  
세건스킨 캡슐 컬렉션의 화이트 데님  
트라우저, 스웨이드 슬림 벨트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러스트 컬러의 다이아몬드 패턴을 더한  
스메로 포인트를 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캐시미어 싱글브레스트 재킷,  
화이트 컬러의 코트 류닉 블라우스,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캐시미어 트라우저,  
버클 디테일과 스리몬 솔을 매치한  
다크 블루 컬러의 오픈 슈즈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꾸뛰르



트로페오 패브릭 소재의 슬리브를 더한 하이브리드 블루중, 블랙 컬러의 울 니트 웨어, 네이비 컬러의 울 트라우저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감독 박찬욱) 가족 디테일과 양털로 포인트를 준 칼라가 돋보이는 캐시미어 하이브리드 보어 재킷, 캐시미어와 실크 소재의 니트 웨어, 편안한 실루엣과 착용감을 자랑하는 트로페오 캐시미어 소재의 드로스트링 트라우저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배우 유지태) 캐시미어 & 코튼 혼방 소재의 라이트 그레이 컬러 싱글 브레스트 재킷, 화이트 컬러의 캐시미어 터틀넥, 허리에 엘라스틱 밴드를 적용한 캐시미어 & 코튼 혼방 소재의 조깅 트라우저, 엑스트라라이트 러버 솔을 더한 하이탑 티지아노 스니커즈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트로페오 패브릭 소재의 슬리브를 더한 하이브리드 블루중, 블랙 컬러의 울 니트 웨어, 네이비 컬러의 울 트라우저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애프터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마이크로 체크 패턴 슈트와  
올 터틀넥,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을 더한 네이비 컬러 스카프  
모두 에르메네젤도 제나 꾸뛰르.

비류나 컬러의 울 코트, 러스트와 그레이,  
캐멀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캐시미어 & 실크  
혼방 피케 셔츠, 편안하면서 세련된  
실루엣의 울 트라우저, 버클 디테일과  
실리콘 솔의 디크 블루 컬러 울크 슈즈 모두  
에르메네젤도 제나 꾸뛰르.

문의 02-2240-6524

헤어 & 메이크업 류재  
스타일리스트 유환정  
장소 함창 파란디아스 시티 호텔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 crafted Modernity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의 2017 A/W 컬렉션, 이 모든 요소에는 브랜드의 아티스틱 디렉터 알레산드로 사르토리의 메시지와 감수성이 녹아 있다. 지난 2016년 2월 그가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그룹의 모든 브랜드를 아우르는 아트 디렉터로 임명된 이후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첫 번째 컬렉션에는 창의성과 열정, 현대적인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 헤링본 패턴의 금속 버로 란베이를 구민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꾸뛰르 패션쇼. 2 3 브랜드 고유의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요소를 녹여낸 알레산드로 사르토리의 2017 A/W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꾸뛰르 컬렉션. 4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의 모든 브랜드를 총괄하는 아티스틱 디렉터 알레산드로 사르토리. 5 강렬한 컬러 피우더 색상의 발라클라바를 위한 액티브한 무드의 라이트 그레이 색상의 제냐 블레이저. 6 7 올해 밀라노 가구박람회 기간 동안 밀라노 문예 박물관에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글로벌 스토어에 전시된 제냐 토티즈 컬렉션 중 헤드폰, 도미노 세트, 라자와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제안으로, 국내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제냐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8 오직 비스포크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만든 밀라노에 위치한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비스포크 아틀리에. 완벽한 테일러링과 정교한 수작업, 완벽한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2백 단계의 공정에 1백50개의 피스, 최소 75시간이 소요되는 예술적인 작업이다.

## 사르토리가 선보이는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이번 새로운 사르토리의 컬렉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현대적인 장인 정신을 주제로 한 '메이드 투 메저',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의 메인 컬렉션이다. 밀라노의 갤러리에 설치된 독일의 설치미술 작품과 인텔을 기피의 작품 'Seven Heavenly Palaces'의 작품 속에서 쇼를 선보인 새로운 A/W 컬렉션은 강렬한 텍스처와 구조적인 요소를 통해 사르토리의 규칙의 진화와 전환을 정의했다. 강한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실루엣은 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액티브한 감성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블루종과 파카는 가벼워졌고, 테일러링을 강조한 아우터 웨어의 여림 부분에 고무로 된 지퍼를 사용해 남다른 감각을 선보였다. 남성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소재 개발에서도 보다 발전된 모습을 드러냈는데, '트로페어 캐시미어 데님', '캐시미어 저지', '듀블라 패드드 자카드' 등 완성도 높은 소재를 선보였다. 또 특별한 데님 과정을 통해 방수가 가능한 가벼운 송아지가죽을 사용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패션쇼의 마지막에는 직접 모델들 가까이 다가가 옷을 만져보고 의상의 착용할 모델과 의상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고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디자이너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사르토리는 자신만의 예술적 가치를 다양한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데, L.A. 댄스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다. 이 댄스 프로젝트의 공동 설립자 벤자민 밀피에오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성사된 이 인연은 지난 5월 27일 텍사스 주 미피에서 세계적인 쿼텟파파리 아트 뮤지엄인 차니티 재단이 주최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의 일환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L.A. 댄스 프로젝트의 모든 무용수는 사르토리가 디자인한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의 꾸뛰르 의상을 착용해 남다른 무드를 만들어냈다. 사르토리의 생각의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빈티지 스키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 무드의 스포츠 웨어를 선보인 Z 제냐(Zegna), 2017 밀라노 가구박람회에서는 선보인 팔레타스타 제냐 토티즈 컬렉션까지 무한 확장된다. 여기에 더해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본연의 기품인 맞춤형, 완벽한 수트를 선보이는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비스포크 아틀리에를 지난 3월 15일 밀라노 제냐 글로벌 스토어 최상층에 오픈하는 행보까지 이어져 사르토리가 총괄하는 에르메네지질도 제냐의 가치에 큰 기여를 하게 한다. 문의 02-518-0285 에디터 배미진



# final Touch

박찬욱 감독과 배우 유지태가 함께한 멋진 화보를 완성해준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홍장현이 선택한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컬렉션, curated by hong jang hyu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누백 레더 소재 필드 자켓, 캐시미어와 실크에 목부분의 누백 레더 디테일을 더한 '세컨 스킨' 캡슐 컬렉션의 크루넥 니트 웨어 모두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블랙 색상의 캡, 그레이 머플러, 캐시미어와 코튼 소재의 라이트 그레이 색상 트로우저 모두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꾸뛰르. (오래 왼쪽부터) 엑스타라 라이트 솔을 매치한 하이톱 티셔츠는 스니커즈, 비류나 색상의 펠레 테스타 홀드올 백, 금속가리는 질감의 카센티노 효과의 캡 모두 에르메네지질도 제냐 꾸뛰르. 문의 02-518-0285 에디터 배미진





Ermenegildo Zegna

DEFINING MOMENTS

ROBERT DE NIRO and BENJAMIN MILLEPIED, NY, 7pm  
DISCOVER THE CONVERSATION AT ZEGNA.COM #ZEGNACONVERSATIONS